



런던에 등장한 손흥민 벽화

“영국계 아시아인 아들이 SON 님길 열망”
토틀넘 라이벌인 웨스트햄 팬 작가가 그려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3골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틀넘)의 벽화가 런던 거리에 등장했다. 토틀넘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웹은 28일(한국 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런던 스토크리 거리에 그려진 손흥민 벽화를 소개했다. ‘찰각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과 영어 이름, 등번호 7번이 새겨져 있다. 벽화를 그린 이는 ‘그나저’로 활동 중인 그래피티 작가 데이브 내쉬다. 그는 토틀넘의 지역 라이벌 웨스트햄의 팬인데도 “영국계 아시아인인 내 아들이 EPL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 손흥민을 달기를 열망한다”고 설명했다. 6월 A매치 4연전으로 초여름 축구열기를 달궜던 손흥민은 다음달 13일 팀 K리그, 16일 세비야(스페인)와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 국내 팬들과 다시 만난다.

사진출처 | 스포츠웹 페이스북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돈을 향한 욕망...제2의 오징어게임이 뜬다

7월 공개 채널A ‘펜트하우스’·티빙 ‘제로섬게임’ 거액 상금 걸고 독특한 두뇌게임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다. 극도의 심리게임과 치열한 서바이벌 포맷의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 4억 원의 상금을 놓고 두뇌싸움을 벌이는 채널A ‘펜트하우스’와 심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제로섬게임’(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진제공 | 채널A·티빙



4억 상금 걸린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
김보성·낸시랭 등 꼭대기층 차지 경쟁
몸무게 유지해야 상금받는 ‘제로섬게임’
출연자들 심리전, 눈치싸움 색다른 재미



“거액의 상금으로 대변되는 욕망 앞에 놓인 인간성에 관한 질문!”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게임’의 열풍이 아직 식지 않고 있다. 방송사들은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독특한 ‘심리게임’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자극한다.

채널A ‘입주쟁탈전: 펜트하우스’(펜트하우스), 티빙 ‘제로섬게임’ 등 출연자들의 전락 싸움을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들이 내달 차례로 공개된다. 각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히트 이후 새 트렌드로 자리 잡은 서바이벌 포맷을 실험적인 소재와 결합시켜 시

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방송하는 ‘펜트하우스’는 최고 상금 4억 원을 걸고 8명의 출연자가 펼치는 두뇌싸움을 내걸었다. 배우 김보성, 미술작가 낸시랭, 배우 김부선 등의 딸인 이루안(이미소) 등이 5층짜리 폐건물에서 ‘절대 권력’이 주어지는 꼭대기 층을 차지하기 위해 10일간 경쟁을 벌이는 내용이다. 이들은 서로 동맹하거나 견제하면서 더 높은 층에 입주해 많은 상금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서혜승 책임프로듀서(CP)는 28일 “상금으로 대변되는 욕망 앞에 놓인 출연자들을 통해 인간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타심, 이기심 등 다양한 가치를 두고 고민하는 출연자들의 상황에 시청자들도 쉽게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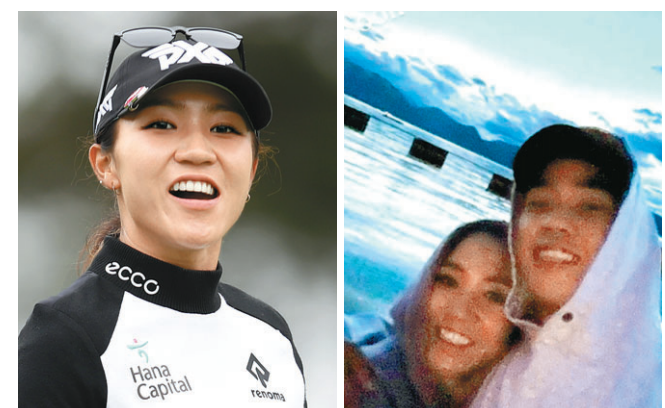
1일부터 공개되는 ‘제로섬게임’은 몸무게를 소재로 해 독특한 개성을 살렸다. 개그맨 김명진, UFC 파이터 김한솔, 안무가 리안 등 10명의 출연자들이 몸무게의 총합을 유지해야 일정 금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언뜻

보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지만, 출연자의 눈치싸움이 핵심이다. 출연자들은 100g의 오차마다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상금을 지키기 위해 팀워크를 다지거나, 상금을 독식하기 위해 거짓말도 한다. 제작진은 반전 요소를 주기 위해 팀 혹은 개인 미션도 틈틈이 삽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콘텐츠들이 경쟁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누적 조회수 5500만 뷰를 넘긴 유튜브 콘텐츠 ‘머니게임’ 등 관련 콘텐츠들이 높은 화제성을 얻으면서 방송가에는 관련 시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티빙은 5억 원 상금을 걸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보물상자를 찾는 리얼리티 포맷의 ‘보물찾기’를 8월부터 제작한다.

이에 대해 서 CP는 “심리게임과 서바이벌 포맷은 치열한 경쟁사회의 한가운데를 헤쳐 가는 MZ세대 시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만큼 이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라면서 “방송사 차원에서는 폭넓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지난해 6월 US오픈에 출전한 리디아 고(왼쪽 사진). 리디아 고와 정준 씨가 함께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뉴스·리디아 고 인스타그램

‘골프천재’ 리디아 고 현대가 머느리 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아들 정준씨와 연말 결혼
리디아 고, SNS에 함께 찍은 사진 올리고 ‘Soon’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뉴질랜드 국적의 교포 리디아 고(25·한국명 고보경)가 올 연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인 정준 씨(27)와 결혼한다.

28일 금융업계와 골프계에 따르면 리디아 고-정준 커플은 오는 12월 3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2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이들의 열애는 이미 지난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리디아 고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에 정준 씨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며 ‘곧(Soon)’이라고 적어 결혼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정준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를 졸업하고 올해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현대차 계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두 사람은 리디아 고의 투어 일정을 고려해 결혼식을 12월 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한국에서 태어난 리디아 고는 2003년 뉴질랜드로 건너갔다. 15세에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고, 17세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일찌감치 ‘골프천재 소녀’로 이름을 떨쳤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은메달,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따냈다. LPGA 투어 통산 17승을 수확했고, 28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선 지난주보다 한 계단 내려간 5위에 랭크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고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의 장남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다. 현재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두 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진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